

철저한 현지화로 美 시장 공략 나선다

중전기·자동차소재 등 주력사업 현장 경영 테네시주 상원의원과 중전기 협력 논의 조희장, “선제 대응해 美 시장 지배력 높여야” 美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기술 혁신도 주문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효성중공업 공장에서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한 조현준 회장(오른쪽)과 빌 해거티 미 상원의원. 사진제공 | 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효성은 조 회장이 9월 초 효성중공업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과 텍사스주 달라스 효성TNS 미국법인을 잇따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회장의 미국 방문은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조 회장의 방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위 위상을 강화하고, 신시장 확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먼저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고 경쟁사에 앞서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 시장은 바이든 정부가 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개선에 약 1조2000억 달러(1407조 1200억 원)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SOC(사회간접자본)와 에너지, 자동차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에 예상되고 있다.

조 회장은 “미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의 핵심”이라며,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고객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테네시주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협력 논의

효성은 1980년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현재 6개 법인(제조 3개, 판매 3개)을 운영하고 있다. 약 14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 약 12억 달러(1조 4066억 4000만 원)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16억 달러(1조 8755억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조 회장은 중공업부의 첫 미국 생산기지인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방문해 미국 시장 동향과 전망, 향후 전략 등을 점검했다. 이어 빌 해거티 테네시주 상원의원과 만나 멤피스 생산현장을 함께 시찰하고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지역의 중공업 기술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력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테네시 지역과의 상생은 물론 미국 전력 시장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멤피스 공장의 성장과 사업 확대를 위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효성의 테네시주 멤피스공장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증설을 추진 중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멤피스 공장은 연산 초고압변압기 6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초 목표의 2배 이상 상향된 것으로 내년 1억 달러(1172억 4000만 원) 이상의 매출도 기대하고 있다.

효성은 멤피스 공장을 명실상부한 중공업부의 미국 시장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기대되는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에 대한 대응은 물론, ESS·스태콤(STATCOM·무효전력보상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

●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혁신 주문

조 회장은 10일(현지 시각) 미국 델러스의 효성TNS 미국법인(NHA·Nautilus Hyosung America)을 방문해 전시장과 제품을 점검하고 향후 마케팅 전략 등 시장 공략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자동화기기(ATM) 전문 계열사인 효성TNS는 지난 2000년대 중반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소규모 ATM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로 올라섰다.

조 회장은 현지에서 금융 및 IT 전문가들과 만나 급변하는 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효성TNS 미국법인에는 미국의 금융 및 결제 트렌드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생존을 위해 강도 높은 혁신과 기술 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효성TNS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키오스크 등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효성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뚜렷한 미 자동차 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다. 효성은 전기차 및 수소차용 타이어코드의 개발과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아라미드 등 전기차용 타이어코드에 사용되는 첨단소재와 카페트 등 자동차용 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직원이 태양광 모듈 관련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화큐셀

한화큐셀, 獨태양광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 '태양광 셀 특허 기술' 선도적 지위 굳힌다

한화솔루션 계열 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최근 독일 태양광 모듈 제조사와 태양광 셀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에 반사층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관련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해당 기술을 포함하는 퀴텀 듀오 지(Q.ANTUM DUO Z) 기술로 고효율, 고품질 태양광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한화큐셀이 태양광 셀 기술에서 선도적 지위를 굳히고, 경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제조사로부터 특허 유효성과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화큐셀은 해당 태양광 셀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이 경쟁사 3곳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고, 2019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를 갖게 됐다. 현재 해당 소송은 한화큐셀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독일과 프랑스에서 동일 특허 보호를 위해 다수 업체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부사장은 “이번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한화큐셀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이뤄낸 성과에 대한 인정”이라며 “앞으로도 태양광 산업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 그린에너지 솔루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GS칼텍스, '질소분위기 촉매 교체작업' 국내 최초 로봇 도입

로봇 활용해 작업자 직식사고 위험 낮춰 “실제 업무에 디지털 기술 적용속도 높일 것”



허세홍 사장

GS칼텍스는 국내 최초로 위험성이 높은 '질소분위기 촉매 교체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유·화학 시설 정비 작업 등에서 활용되는 질소분위기 작업은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를 투입하는 고위험 작업으로 작업자가 직식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GS칼텍스는 국내 로봇 전문 업체와 협업을 통해 가상 작업공간을 만들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후 실제 현장의 설비에 로봇을 투입하는 질소분위기 촉매 교체작업에

성공했다.

GS칼텍스는 로봇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정유·화학 관련 시설에 추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봇을 활용한 질소분위기 촉매 교체작업은 GS칼텍스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사내프로그램인 SBT에서 나왔다. SBT 프로그램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구성원이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참여할 그룹을 구성하면 내부 심사를 통해 선발된 그룹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컨퍼런스, 프로토타입 제작, 파일럿 테스트 등 다양한 학습과 시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허세홍 사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는 산업간 경계를 넘어서 공존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이 필수적이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을 수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외부



국내 최초로 로봇을 활용한 질소분위기 촉매 교체작업 모습. 사진 | GS칼텍스

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픈이노베이션을 강조했다.

허 사장은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디지털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며 “전사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15일(수) 음력: 8월 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뚜렷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감정이설에 조심할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 통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인간관계보다는 일에 집중하라.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망신수가 따를 수 있지만 횡재수가 있다.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쟁망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승진이나 진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가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나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남자 조심하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웅담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정신적으로 는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바빠지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날이다. 움직여야 한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될 것이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침착하게 일에 임하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겹치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오늘은 서두르지 말라.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오늘은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라.

오늘의 날씨			15일(수)
서울 0/0 19 28 강릉 30/30 18 24 광주 30/30 21 28 창원 60/60 20 27	인천 0/0 20 28 대전 20/20 19 28 대구 30/30 20 26 제주 60/60 24 26	춘천 20/20 17 27 전주 30/30 20 28 부산 60/30 21 26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C	15일(수) 17 27 20 28 21 26 24 26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6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인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